

100922 주일설교 “감사” 누가복음(Luke) 17:11-19

십중팔구는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이라는 의미로, 거의 예외 없이 그럴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십중팔구는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80~90퍼센트라는 뜻이에요. 가령, “먹구름이 가득인 걸 보니 오늘 십중팔구 비가 오겠다”이럴 때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in nine cases out of ten. most likely. Ten to one, (it will rain tomorrow). 이와같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십중팔구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긍휼하심을 구했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믿고 돌아가는 길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명 중에 아홉은-십중팔구는 병이 낫자마자 각기 제 갈길로 흩어졌지만, 열에 하나, 오직 한 명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그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포인트로 많이 이야기하지요.

당시 문둥병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징표로 여겼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당시 서로 말도 섞지 않을만큼 반목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듯이 10명이 한 그룹을 이루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10명 모두 “문제의 해결”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모두 자기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다시말하면, 아픈것이 치유되는 것 말이죠. 하지만, 오직 한명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순간 다른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돌아왔습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요. 2천년전에 엎드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예를 갖춰 엎드리다, 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엎드렸다는 표현을 통해 예배자를 생각해 보게 되요. 10명 모두 당장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오직 한명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오직 한사람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 받았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병고침 때문에 주님께 나아왔지만, 결국 구원을 얻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이신지 이시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기적의 사건" 혹은 "문제의 해결" 자체에 주목하지 아니하심을 봐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왔더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되심을 보기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통은 내 문제로 인해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문제 해결 자체가 우리 기도와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우리 인생 길 삼아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살면서 심중팔구 놓치기 쉬운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에 보면 almost 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의, 혹은 ~뻔. 근데 우리가 만약, '죽을뻔했다'라면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거죠. 반대로 '살뻔했다?'라고 하면 결국 죽은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뻔 했다'라면 무슨 뜻입니까? 결국 구원 못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구원 못받을 뻔했다'가 되지! '구원받을 뻔했다'가 되면 클라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자 그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다고 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안됐다는 거예요. 믿을 뻔한 것은 소용없어요. 못 믿을 뻔했어야지요!

우리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심중팔구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10명의 문둥병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스스로 기뻐하며 그 일을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심중팔구 타이밍이 좋아서 해결된거고, 심중팔구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문제해결 자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푸신 인자하심을 돌이켜보며, 예수님께 돌아온 1명의 치유받고 구원받은 문둥병자처럼,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을 들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코람 데오(coram Deo)란 라틴어인데 'Deo'는 잘아시죠! '하나님'을 뜻하고, 'coram' 코란이 아니라 코람입니다. 코람은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 말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했던 중세 신앙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요약해서 주장했던 말입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Sola Scriptura/오직 성경, Sola Fide/오직 믿음, Sola Gratia/오직 은혜,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라는 다섯 가지 슬로건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코람데오’가 있다면 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만만하게 여기기 않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죠). 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 명예롭고 잘 살기 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익적 휴머니스트, 언어의 연금술사 등 현란한 수식어를 가진 그였죠. 그런 그는 기독교에 대한 독설을 서슴지 않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어령 박사예요. 그는 “자신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를 설파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폄박했던 무신론자였던 그가 2007년 7월 23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에 세상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지성을 자랑하던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독교인을 폄박하고 회심한 사도바울과도 같았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과거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읽힌다”고 말하며, 그는 “나는 바울이 아닌 도마이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철저한 절망의 궁극에 이르면 읊처럼 영성의 소리를 듣게 된다”며 기독교에 귀의한 과정을 설명했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꽃꽂이를 무너뜨린 것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딸이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암이 나았는데, 또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 있는 동안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이어령 박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미국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민아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결국 딸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령 박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같이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이어령 박사는 딸이 눈을 뜨게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신앙을 갖게 되고 영생을 의지하기까지 한 발씩 걸어온 고독하고 외로운 여정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망막이 고쳐졌다고 언젠간 안 죽나요? 눈이 나았다고 해도, 암이 없어졌다 해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 기적은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가 아닌,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듯이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오신거예요! 다 좋은데, 20-30년 동안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을 뻔했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쯤으로, 좋은 분쯤으로만 여기고 교회에 나아왔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바로 깨달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중팔구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 자체에만 급급하지만, 구원받은 한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감사하고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고,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서라도 예배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